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사회통합과 보건복지 정책 연구의 중심

한 국 보건 사
회 연구 원

(이하 보사연)은 올해로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보건사회복지 정책연구의 허브기관이다. 보사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이 분야에서 독보적 연구업적을 쌓아온 실적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에 연구역량을 집중해왔다.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을 중심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실시했고 다수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보건사회통계실을 통해서는 통계청과의 업무협약,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통계 업무 협력증진을 꾀함으로써 통계업무 효율화에 관한 한 가장 신뢰받고 안전성 높은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민 보건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사연이 올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총 181건이다. 기본과제 27건, 협동과제 2건, 일반과제 9건, 수시과제 5건이며 수탁과제는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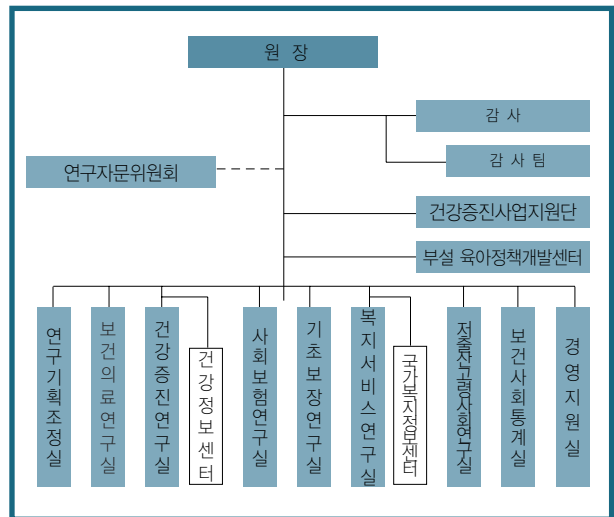
이월 과제분까지 포함해 138건이다.

9개 실과 3개 센터로 구성

보사연은 1971년 7월 1일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이 모체이다. 이후 1976년 4월 19일 설립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률 제2857호)과 1981년 7월 1일 통합해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1989년 12월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기능을 흡수 ·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그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직도



보사연은 원장 직속의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실 및 감사팀, 연구기획조정실, 보건의료연구실, 건강증진연구실, 사회보장연구실, 기초보장연구실, 복지서비스연구실,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보건사회통계실, 경영지원실 등 9개 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등 1개 지원단, 건강정보센터, 국가복지정보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등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근무 인원은 선임연구위원 · 연구위원 · 부연구위원 54명, 선임연구실 · 연구실 23명 등 연구직 77명, 관리직 16명 · 전문직 9명 · 별정직 5명 등 지원직 30명이다.

2009년도 중점 연구사업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위한 활동영역 확대

보사연은 올 한 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확대 적용과 건강보험의 내실화, 글로벌 경제위기 아래의 중산층 빈곤화 방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연구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7~2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대회의실에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의 관련 석학과 국내 권위있는 학자 30여 명이 참여해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해 정부 정책 입안에 큰 방향을 제시했다.

9월 28일에는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워킹푸어의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10월 13일에는 국회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실천적 접근: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매월 한두 차례씩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중도 친서민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과 개혁방안들을 마련해 제공했다.

삶의 질 향상과 연금 · 건강보험의 효율성 증대 연구

각 연구실의 올 한해 주요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보장연구실(실장 김미곤)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에도 연구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빈곤에의 진입과 그로부터의 탈피를 결정하는 요인과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조가 빈곤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전달체제

를 모니터링·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세운다.

이 밖에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연구,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등을 하고 있다.

사회보험연구실(실장 윤석명)은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새로운 사회보험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변에서 파생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비용 효과적인 해법을 구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사회보험연구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모두가 국가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며,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영향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 방안, 고령사회를 대비한 한국적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등을 연구한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구와 과학적 통계 생산

복지서비스연구실(실장 김미숙)은 다양한 사회집단의 각기 다른 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세우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여성노동시장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 가족의 노인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서비스,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복지서비스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되는가를 평가해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 관련 배경지식의 증진을 돕기 위해 국가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복지서비스 쟁점 및 발

전전략,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복지 욕구 분석 연구, 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 방안,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등이다.

보건사회통계실(실장 송태민)은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에 발맞춰 통계청 회의를 통해서 통계청과 보사연 간 보건복지 관련 통계협력 MOU를 체결했다. 약정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보건복지 관련 통계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제공, 인력교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했다.

조직도 올해 들어 확대 개편했다. 통계개발팀, 조사기획팀, 조사관리팀, 전산운영팀을 두어 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보건사회통계실을 통해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관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각종 보건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들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연구로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발전방안 연구,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OECD 보건통계 생산, 주민생활 지원 통합정보 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과 식품안전에 관한 연구

국가적 당면과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실장 정경희)은 올해도 두드러진 연구활동을 계속해왔다. 출산을 저하 원인은 고학력 여성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야기된 출산기피 추세,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다 지출, 탁아시설의 부족, 결혼 연령의 지체, 독신자 인구 확대 등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출산을 저하 원인은 고학력 여성과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야기된
출산기피 추세, 양육비와 교육비의 과다 지출, 탁아시설의 부족,
결혼 연령의 지체 등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8일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Fertility Decline and Work-Life Balance)’ 정책토론회 등 크고 작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 현재의 출산 추세와 함께 앞으로의 인구변화 예측 등을 연구해오고 있다.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가속화 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노동 가족 사회네트워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장기 요양서비스와 정부 지원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중점 연구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미개발 기회들을 발굴하고 활용할 정책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유료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 연구, 고령화 수준에 대응하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발전 모델, 장사문화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계획·수립 연구,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실(실장 이상영)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질적·양적 개선과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찾고 있다. 통합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집단에 대한 특성을 연구 분석하고 질 높은 지역 보건의료를 위한 인력 및 자원의 공급방안을 모색한다.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도 보건의료연구실이 다루는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건강상태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의료안전망 구축과 정책과제, 지역보건의료 정보화 발전방안 연구, 한미 FTA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남북한 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건강증진연구실(실장 정기혜)은 국민건강 증진 행위의 실

천 정도를 높이고 식품영양 정책을 개선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강위험 행위를 줄이거나 방지하고 건강에 이로운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짜는 일이 수반된다. 나아가 금연, 비만 예방과 관련된 건강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도에서 펼치는 정책과 제도를 평가하는 직무도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를 기획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건강증진정책 평가 및 실천방향,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 양극화의 영향 요인분석과 정책과제,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 대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생활환경 연구

보사연은 2009년 중점 추진과제 5가지를 선정해 연구해 오고 있는데 이 중 변용찬 연구기획조정실장의 ‘녹색성장과 생활환경’이 대표적이다. 녹색성장은 에너지·기후변화에의 대응전략이며, 선도형 성장전략을 위한 국가 패러다임이라는 연구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 창출을 추진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에 방점을 두고 환경,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토개조와 생활혁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확보하고자 한다. 미래정책



이 계 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전문위원